

‘광주 생산’ 셀토스, 6년 만에 ‘풀체인지’ 공개

10일 ‘기아 월드 와이드’서 세계 최초 디자인 발표
안전·편의사양 등 강화...소형 SUV 시장 공략 나서

기아 오트랜드광주에서 생산되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셀토스가 6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다. 셀토스는 ‘기아 대표 소형 SUV’로 자리매김한 핵심 모델로, 이번 신형 발표를 계기로 광주공장 가동을 제고하고 지역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는 1일 풀체인지 모델 ‘디 올 뉴 셀토스’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오는 10일 ‘기아 월드 와이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선보이며 세계 최초 디자인 발표에 나선다. 이번 신차는 2019년 1세대 셀토스 이후 6년 만의 모델 체인지로 치열한 글로벌 소형 SUV 시장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전략 모델로 꼽힌다. 특히 국내의 판매 비중이 높은 셀토스가 광주 생산 차량이라는 점이 지역민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기아 오트랜드광주는 셀토스를 비롯한 스포티지, 소울 등 SUV 중심 차량을 생산 중인 국내 주요 거점 공장이다.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소형 SUV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신형 셀토스 출시는 광주공장 운영 안정성과 일자리 유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지역 산업계에서도 신차 효과에 따른 생산량 확대와 협력 업체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새로운 셀토스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픈잇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토대로 정통 SUV 비움을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미했다. 전면부는 수직형 주간주행등(DRL)을 활용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해 기아 모델 특유의

존재감을 강조했다. 후면은 전면과 통일성을 확보한 수직·수평형 램프로 안정적 이미지를 구현했다. 또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체 안쪽으로 들어가는 고정형 손잡이(플러시 도어 핸들)를 적용해 실용성과 감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이를 통해 세부 요소까지 섬세하게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이 기아 측 설명이다. 기아는 신형 셀토스에 정제성을 담은 디자인뿐 아니라 파워트레인·안전·편의사양 전반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해 온 셀토스의 경쟁력에 미래형 기술을 더해 세계 소형 SUV 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경제계는 신형 셀토스가 광주 완성차 산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와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기아 관계자는 “새로운 셀토스를 통해 세계 소형 SUV 시장에서 브랜드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아가 6년 만에 최초 공개한 대표 소형 SUV ‘디 올 뉴 셀토스’의 티저 이미지. <기아 제공>

금호타이어, 폴란드 오폴레에 첫 유럽 공장 짓는다

8606억 투자...2028년 가동
‘현지 생산·공급’ 중심 전환

금호타이어가 유럽 신공장 부지를 폴란드로 확정했다. 금호타이어는 1일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와 유럽 시장 공략 강화를 위해 폴란드 오폴레 지역을 유럽 공장의 최종 부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폴란드 오폴레 유럽 신공장은 투자 승인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8월 첫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1단계 생산 규모는 연간 600만 본으로 계획했으며, 현지 수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 총 투자금액은 5억 8700만 달러로 한화 8606억원

규모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공장 건설을 위해 폴란드 등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입지 조건, 판매 확대 가능성, 투자 안정성, 수익성, 인센티브 혜택 등을 검토해 왔다. 최종 2개 후보지를 놓고 비교한 결과 물류·인력·인프라 등 폴란드 정부가 제시한 경쟁력과 유럽 내 공급 안정성, 다양한 인센티브 수준을 감안할 때 오폴레가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은 전 세계 타이어 소비의 2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지난해 금호타이어 전체 매출 중 26.6%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해 판매 구조를 ‘수출 의존’에서 ‘현지 생산·공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성능·고인자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HVP) 비중을 높여 수익성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유럽은 글로벌 OE(신차용 타이어)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세계 주요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가 집중된 지역이기도 하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유럽 내 생산기지가 없어 현지 관세 부담, 공급 안정성 등에서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오폴레 공장 가동 이후에는 현지 OE 물량 대응력, 프리미엄 브랜드와의 협업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단순 수출을 넘어 유럽 현지 생산과 공급을 통해 품질·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현대위아 멕시코법인, 포드 ‘Q1 어워드’ 인증

생산 기술·제품 기술력 인정 받아

현대위아 멕시코법인은 “세계 완성차 포드로부터 ‘Q1 어워드’ 인증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포드의 Q1 어워드는 ‘품질이 가장 뛰어나다(Quality is No.1)’는 뜻으로 포드가 생산 기술과 제품의 기술력 품질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업체에 수여하는 인증이다. 현대위아 멕시코법인이 Q1 어워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위아 멕시코법인은 5년 이상 구동 부품인 등속조인트를 공급하며 보여 온 품질을 기반으로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등속조인트는 엔진이나 모터가 만드는 동력을 자동차 바퀴로 전달하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다.

법인은 지난 2019년부터 포드의 고급 브랜드인 링컨 SUV 차량 코세어에 등속조인트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포드의 픽업트럭 차종인 매버릭에도 납품 중이다. 현대위아는 세계 완성차 업체로부터 품질력을 인정받은 만큼 북미 지역 내 영업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위아는 등속조인트의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무게를 줄이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북미 완성차 업체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이번 Q1 인증은 현대위아 부품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 이동 수단 시장을 이끄는 부품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아 타스만·KGM 무쏘 EV...국산 픽업트럭, 안정성 인정 받아

TS·자동차안전연구원 발표...자동차안전도평가서 종합 2등급

기아 타스만과 KG모빌리티(KGM) 무쏘 EV 등 국산 중형 픽업트럭 2개 차종이 정부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안전 등급 종합 2등급을 받으며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발표한 중형 픽업 부분의 KNCAP 안전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는 충돌 안전성, 외부 통행자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 등 3개 분야로 모델별 별 1개~5개를 각각 부여한다. 이 중 별이 가장 적은 분야를 기준으로 해

당 모델의 종합 등급을 1~5등급으로 결정한다. 별이 5개면 1등급, 4개면 2등급이다. 타스만은 충돌 안전성 별 4개(82.7%), 외부 통행자 안전성 별 4개(66.3%), 사고 예방 안전성 별 5개(78.0%)로 평가됐다. 무쏘 EV는 충돌 안전성 별 4개(80.3%), 외부 통행자 안전성 별 5개(83.1%), 사고 예방 안전성 별 5개(70.8%)를 획득했다. 전기차인 무쏘 EV는 별도로 이뤄지는 전기차 안전성 분야 평가에서 별 4개(72.7%)를 받

았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상시로 제공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국토부, 무보험 차량 단속 사각지대 없앤다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보험개발원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지난해 기준 2600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연계해 연 9만 8000대의 무보험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롭게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부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월 평균 적발 건수 8000건에서 5만건으로 무보험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국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